

# 1890~1930年代 經濟學界 論爭에 대한 方法論的 評價: 오스트리아學派를 中心으로<sup>(1)</sup>

洪 起 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현대 경제학의 모습이 자리 잡아 가던 시기로서, 당시 방법론적으로 볼 때 신고전학과, 제도학과, 맑스주의 등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 중 신고전학과와 같이 個體論的 방법론을 쓰면서도 단순한 수학적 기법보다는 좀 더 경험적인 방법에 의존하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그 수는 적지만 독특한 방법론적 입장에 따라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 중 특징적인 것을 들면, (1) 歷史學派 사이에서 벌어진 귀납법-연역법에 관한 방법논쟁, (2) 신고전학과적 입장의 사람들과 벌인 社會主義 計算論爭, (3) 맑스의 노동가치론을 비판하여 생긴 가치논쟁, (4) 자본의 測定과 관련하여 벌인 자본논쟁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정리함으로써, 方法論的 입지가 당시에 서서히 분화되어 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오스트리아학파는 첫째 역사학과에 비해서는 경제문제에서 일반법칙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 둘째 신고전학과에 비해서는 불확실성 하에서 개인의 經濟行動이 복합적이어서 단순한 법칙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 셋째 맑스경제학에 대해서는 전체적이고 平均的인 관찰은 경제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넷째 자본의 時間的 構造와 같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변수를 사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 1. 序 論

1850년대 이후 영국 고전학과 경제학의 발전이 정체되면서, 그 대안으로 구미 각국에서 다양한 이론적 潮流들이 나타났다. 이 조류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대략 열거해보자면, 限界革命으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新古典學派, 독일어 문화권의 중심적인 경제학이었던 歷史學派와 그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발전한 制度學派, 유럽 사회주의 운동과 결부되어 현실적인 영향력이 컸던 맑스주의, 그리고 독일 문화권에 있었지만 독자적인 방법론을 가진 오스트리아학파가 있었다.

이들 경제학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1870년대 이후 경제학의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와 專門化(professionalization)가 심화되면서, 서로 교류하고 경쟁

(1)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정석연구기금)의 인문사회 해외연구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京都大學 經濟學部 八木紀一郎 교수와 세미나를 통해 과학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준 오스트리아 Vienna 대학의 K. Milford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하면서 경제학계에서 자리 잡게 된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논쟁들은 정치적 지향, 문화적 특성, 경제적 배경, 자연과학의 영향 정도 등의 차이에 의해서 촉발된 측면이 강하지만, 과학방법론의 차이도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비슷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독일어 문화권에서의 논쟁이나, 미국에서의 신고전학파와 제도학파의 논쟁을 보면 그러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쟁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내용과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논쟁의 참여자들이 취하고 있는 과학방법론적 입장과 연결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1890년 이후 전개된 경제학 조류들의 방법론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주요한 논쟁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위치 설정을 통해 193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는 각종 경제학 조류의 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배경적 설명으로서 과학방법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를 경제학계의 상황에 적용한 표를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과학사나 일반적인 과학철학에서의 복잡한 논의들은 가급적 줄이고, 경제학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분석틀로서 귀납법-연역법, 방법론적 개체주의-전체주의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4개 유형의 경제학방법론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신고전학파, 오스트리아학파, 역사학파 및 제도학파, 맑스주의 경제학이라는 4개의 각기 다른 학파들의 방법론적 특성을 간략히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오스트리아학파를 중심으로 하여 학파 간에 일어났던 논쟁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가급적 다른 학파 간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이론적 논쟁을 다루려고 하므로, 이론적 발전을 위해 비슷한 입장의 학자들 간에 일어났던 논쟁이나, 단순히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인해 생긴 논쟁은 제외된다. 물론 어떤 논쟁을 취급하고 다른 논쟁을 취급하지 않을 것인가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경제학사에서 주목을 받았던 논쟁 중에서 오스트리아학파와 관련된 것을 주로 다루려고 한다.

물론 오스트리아학파의 비중은 당시에나 현재까지도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이므로<sup>(2)</sup> 오스트리아학파와의 논쟁과정에서 경제학계 발전의 行路가 확연히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논쟁이 막중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독자적인 방법론적 입장을 취하고 이를 뚜렷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상대방의 방법론적 입장을 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2) 오스트리아학파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다른 학파와의 관계에 대한 현실감 있는 소개는 Mises (1969), 그리고 독일문화권에 대한 경제사상의 흐름에 대한 개괄적 소개로서는 田村信一·原田哲史(2009)를 참조.

가급적 4개 입장의 학파들의 특징을 입체적으로 잘 보여주도록, 비중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다르지만, 선택적으로 몇 가지 논쟁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오스트리아학파와 역사학파 간의 방법논쟁, 오스트리아학파와 신고전학파 간의 사회주의 계산 논쟁, 오스트리아학파와 맑스주의자 간에 벌어진 가치논쟁 등이 주로 소개할 것이며, 비교를 목적으로 미국제도학파와 신고전학파 간의 방법논쟁을 간략히 언급하려고 한다.

제4장에서는 모든 경제학파에서 공통적인 주제로 분석되면서, 이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현대경제학에 이르기까지 계속 논쟁의 주제가 된 자본 개념의 정의와 측정방법에 관한 논쟁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경제학적 특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형상 분석적으로 보이는 논쟁의 바탕에 방법론적 차이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즉 다양한 자본재를 어떻게 집계적인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현실 자본주의에서의 성장과 분배를 설명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사실은 경제학적 입장에 따라 아주 달라서, 사실상 ‘자본’이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방법론적 입지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

제5장은 요약과 결론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더 연구할 방향을 제시한다.

## 2. 科學方法論的 基準과 經濟學派의 立地

### 2.1. 科學的 方法의 特性

Blaug(1980) 등에 소개된 바와 같이 현대 과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적 개념 틀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이러한 개념들 중에서 경제학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귀납법과 연역법의 대비, 그리고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전체주의의 대비가 유용한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귀납법과 연역법의 문제는 사실 자연과학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과학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공통된 기준이다. 이 기준은 과학이란 개념 자체가 인간의 지식 중에서 철학적 진리나 상식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데 중요한 측면이다. 일반적인 통념에서 과학은 “사실에 입각한 일반적인 원리”라고 이해되는데, 이는 과학은 적어도 두 가지, 즉 사실과의 부합성(accuracy)과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일반성(generality)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이 ‘과학답다’라고 생각되려면 이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어떤 지식이 ‘과학’인가 ‘非科學’(non-science)인가를 어떻게 판별하는가는 분명하지 않다.<sup>(3)</sup> 이를

(3) 여기에서 ‘非科學’이라고 할 때, 인간의 지식 중에서 과학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과학철학에서는 판별(demarcation)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논리적인 一貫性(consistency)을 가진 수학이나, 논리적 일관성 여부를 평가하는 논리학이 과연 과학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하기 어렵다. 아울러 현재 과학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식들도 과연 ‘사실에 입각한 일반적 원리’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습적으로 과학자들에게 의해서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과학사적으로 보면, ‘과학’과 ‘非科學’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귀납적 방법이 주요한 기준으로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대 철학자들이 진리(truth)를 추구한 이후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지만, 고대 그리스-로마철학에서는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초월한 이상(Idea) 또는 본질(essence)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근대 이후 경험적 사실에 입각한 지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이러한 경험철학이 바로 근대 과학의 방법론적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실과 부합하는 지식을 계속 축적함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원리가 바로 귀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실을 다 관찰할 수 없으므로 歸納法에는 영원히 일반적인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과학철학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례는 “모든 백조는 희다(All swan are white).”라는 명제로서, 모든 백조를 관찰하지 않고서는 이 명제의 타당성을 알 수 없게 된다. 이를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지적한 사상가는 영국의 경험철학자 David Hume이다.

물론 이렇게 귀납적 방법의 한계는 Karl Popper에 의해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이라는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완화된 바 있다. 즉 어떤 명제를 모든 사실에 비추어 입증해야 과학적 명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적 검증과정을 통해 반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식인가 아닌가가 과학적 명제의 한 가지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역적 방법에 의한 과학의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즉 어차피 모든 사실을 관찰하여 지식을 축적할 수 없다면 부분적 관찰을 통해 이를 一般化(generalization)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일반화 또는 抽象(abstraction)에서 나온 명제를 관찰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그 이후 경험적 타당성 여부를 제시해도 무방하게 된다. 사실 많은 과학적 발견들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찾아진 것도 많다.

---

는 의미이지, 오류나 편견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인간의 지식 중에서 ‘과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보다 ‘비과학’에 포함되는 지식의 양이 많을 것이다. 또한 Hayek(1949)가 말하듯이 현실 경제에서 과학적 지식(scientific knowledge)보다는 국지적 지식(local knowledge)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반증가능성이 과학이 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해서, 어떤 명제가 반증가능성이 있으면 좋은 과학이라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Popper는 과학적 지식이 발전하려면, 더욱 경험적 내용을 풍부하게 담을 수 있도록 그 명제가 반증을 통해 개선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Popper가 모든 연역주의적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sup>(4)</sup>

과학방법의 다른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관찰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분석단위를 개체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인간의 관심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원리는 전체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인간 지식의 한계로 인해 전체를 한꺼번에 관찰할 수 없다. 이러한 양면성에 의해 두 가지 다른 과학방법적 입장이 발생하게 된다.

즉, 분석의 출발점으로서 개체를 설정하는 입장인 方法論的 個體主義(methodological individualism)와 분석단위를 개체 이상의 존재, 즉 집단이나 전체로 하는 方法論的 全體主義(methodological holism)로 나눌 수 있다. 물론 탐구의 대상, 나아가 학문의 성격에 따라서 개체와 전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관심의 대상인가, 그리고 개체라고 할 때 무엇이 개체인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류가 고정적인 성격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에서의 최소 단위는 유전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화학에서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단백질, 그리고 나아가 그 분자를 최소 단위라고 한다면, 생물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무엇이 최소 단위가 되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석의 출발을 최소 단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같다면, 둘 다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인간의 관심이 개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보다 큰 단위를 설명하려는 것이므로, 개체의 특성을 통해 전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개체의 특성을 합하면 전체의 특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還元主義(reductionism)적 입장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讓許的 個體主義

(4) Milford는 과학의 중요한 다른 기준으로서 완전한 결정가능성(full decidability)을 들고 있다. 이는 확실성의 정도인데, 어떤 이론 또는 이론체계가 사실들에 대해 확실한 검증을 제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확률적 명제를 제시하는가 하는 점이다. Milford는 경험적 근거, 보편성, 결정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귀납주의적 입장으로서 단순한 귀납주의(J. S. Mill과 Roscher), 엄격한 실증주의(Mach), 선취주의(apriorism, Mises와 Kant), 확률주의적 입장, 준(pseudo)과학적 입장(Karnap)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반면 연역주의적 입장으로서 conventionalism(Kuhn), 직관적 보편주의,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를 들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서 보편 경제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Friedman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은 보편적인 가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자의적인 것으로 그 타당성은 경험적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는 conventionalism에 해당되므로, Popper의 비판적 합리주의 입장과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concessive individualism)가 있을 수 있다.<sup>(5)</sup>

만약 개체를 통해 관찰되지 않는, 그리고 관찰될 수 없는 특성이 집단이나 전체에서 나타난다면, 불가피하게 전체적 특성을 먼저 관찰하거나, 적어도 전체를 분석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물론 사회과학의 대상인 사회적 현상은 인간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개인행동을 관찰한다고 해도 사회적 맥락에서의 개인행동이므로, 과연 그러한 관찰이 방법론상 개체주의인가 전체주의인가 판정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분석의 출발점으로서 개체를 중시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방법론적 특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나아가 경제학 연구에서 방법론적 논의를 할 때 주의할 두 가지 점이 있다. 첫째는 경제학에서 個體를 관찰한다고 할 때, 이 개체가 自然人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sup>(6)</sup> 개인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행동 또는 특정한 방식의 행동을 분석하므로, 자연인보다 범위가 좁을 수도 넓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행동은 개인행동의 특정 측면을, 기업의 행동은 동일 목표를 가진 개인행동의 집합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는 특정 개인의 행동을 추상화하여 분석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한 가지 방식의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신고전학과 미시경제학에서 전제되는 人間類型을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經濟人’(homo economicus)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드시 모든 개체주의적 설명이 이러한 개인행동을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여하튼 이러한 전제하에서 방법론상 특성에 따라 이론체계를 분류하면 (i) 귀납적-개체주의적 경제학, (ii) 연역적-개체주의적 경제학, (iii) 귀납적-전체주의적 경제학, (iv) 연역적-전체주의적 경제학의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 2.2. 科學方法論에 따른 經濟思想의 分類

1870년대 전후의 경제학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경제학 조류를 위에서 논의된 방법론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음 <表 1>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表 1>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이 표는 각 학파 간에 비교하여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파의 절대적인 방법론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학파의 학자들은 귀납적 방법보다 연역적 방법을 중시하거나 적어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귀납주의자라고 말할

(5)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故 宋鉉浩 교수의 역작(1992)을 참조.

(6) 물론 어떤 사회과학적 연구가 자연인을 관찰한다고 하여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복합적인 현상인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는 심리학에도 4가지 유형의 방법론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表 1〉 19世紀 末境의 經濟學派

	귀납주의적	연역주의적
방법론적 개체주의	오스트리아학파	신고전학파
방법론적 전체주의	역사학과/제도학과	맑스주의

수는 없다.<sup>(7)</sup> 다만, 신고전학파에 비해서 歸納主義的이라는 것이다. 물론 〈表 1〉은 경제학 潮流의 분포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과학적 입장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경제학방법론이 演繹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된다.

둘째, 각 학파에 속한 학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각 학파의 인물 간에도 다양한 편차가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각 인물의 研究 經歷上 자신의 방법적 연구경향이 변화하거나, 연구주제의 특성상 다양한 연구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Tanaka(2000)와 Hong(2008)에서 밝혔듯이 J. B. Clark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독일 역사학파의 영향이 커서 유기체적으로 사회 전체를 분석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후기에는 한계분석(marginal analysis)에 의거하여 개체를 분석하려는 연구 성향을 보였다.

셋째,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각 학파의 비중이나 연구경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고전학파 경제학자의 경우 한계혁명 초기에는 연역적-개체주의적 경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점차로 그 경향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점과 관련하여 19세기 후반의 경제학계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19세기 중엽에는 영국 고전학파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이에 대한 비판은 주로 독일 역사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19세기 후반에는 영국, 나아가 독일에서 주도적으로 발전하던 경제학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리고 미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체로 이 시기에 경제학은 상대적으로 발달된 영국과 독일에서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는 경향이지만, 경제학의 전문화 추세와 맞물려 활발한 지식 교류가 생김으로써 한편으로 논쟁이 일어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서로 영향을 받아 협력적 발전이 일어나기도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專門化(professionalization) 경향의 영향이다. 19세기 후반 歐美 各國에서 경제학이 독립적 학문으로서 대학에서 자리 잡고, 학회결성, 전문지 창간을 통해 경제학자들은 전문가집단으로서 자기의식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이러

(7) 전자의 예는 뵘바베르크이며, 후자의 예는 멩거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적 입장 전반에 대해서는 Alter(1990), Endres(1997)을 참조, 그리고 멩거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White(1984), Milford(1990)를 참조.

한 전문화 경향으로 인해 연구절차나 방법 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의 산물이 논쟁을 활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國際化와 專門化는 경제학의 방향을 정하는데 複合的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경제학의 내용이 多樣化(diversification)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학의 연구방법이나 절차를 同質化(homogenization)하려는 효과를 가진다. 개인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differentiation)되는 연구주제를 개발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지만, 연구자 집단 전체에서 볼 때는 연구절차와 방법을 서로 확인하게 됨으로써 특정한 연구프로그램(research program)으로 동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

말하자면 경제학계의 규모와 경제학연구의 범위의 증가는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특정한 점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그 중심점이 한 가지 점으로 쏠린다는 것은 아니며, 空間經濟學 모형에서 나타나듯이 都心 및 副都心과 같이 몇 개의 중심점이 존재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知的 空間에서의 학자 간의 畛域連橫을 통해, 결국 1930년대 이후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이 主導的 경제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이 바로 한계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Blaug(1985)가 제시하듯이 신고전학파의 주도권이 확고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국제화 및 전문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Hutchison(1955)이 지적하듯이, 國際化 과정에서 이론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학문선발국에서 후발국으로 이론이 확산되어갔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추상적, 연역적 내용이 더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다. 물론 이 경향이 반드시 신고전학파 확산에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Senn(1996, p. 279)이 독일 역사학파의 내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간명한 내용들이 미국으로 더 잘 전달되었음을 보이면서 “간단한 아이디어가 더 잘 전파된다(Simple ideas travel better).”라고 말하듯이, 신고전학파의 전달력이 컸다고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강한 전달력은 결과적으로 意思疏通(communication) 과정에서 이론적 중심을 형성하는데 더 유리하게 되는 요인이었다.

둘째, 전문화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각국의 전문화 경향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화가 신고전학파에 유리했다고 볼 수도 없다. Ross(1991)와 Hong(2008)에서는 미국의 전문화 과정에서 형성된 학문적 풍토로서 국지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는 ‘專門家的 保守主義’(professional conservatism)가 제도학파에 비해서 신고전학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학제도가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정비된 독일에서 역사학파가 主導的이었음을 볼 때, 전문화 요인만으로 경제학의 변화

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3. 오스트리아學派와 關聯된 몇 가지 論爭들

오스트리아학파는 비엔나대학의 멩거와 그의 제자인 비이저, 뵘바베르크를 중심으로 학문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思潮인데, 20세기에 들어서는 나치의 억압에 의해 영국과 미국으로 移住해 간 하이에크, 미제스 등이 중심적인 인물로 간주된다.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적 특징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관적 개인주의(subjective individualism)인데, 경제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이들은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식(knowledge)이라고 보고 있으며, 상품의 가치결정에서부터 사업기회의 발견, 시장의 작동도 모두 지식의 발견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철학자 칸트의 영향을 받아 先驗主義(apriorism)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의 인지능력은 몇 가지 범주로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인간의 성찰(introspection)을 통해 일반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성찰이 가능하다고 보므로, 과도한 추상화나 수학의 사용 등을 꺼리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오스트리아학파의 학문적 경향이 특정한 과학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Milford(1990)가 주장하듯이 數理的 접근을 사용하는 신고전학파에 비해 歸納主義的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오스트리아학파는 독일 역사학과, 英美圈의 신고전학파, 그리고 獨逸 文化圈의 맑스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된다.

#### 3.1. 方法論爭(Methodenstreit)

방법논쟁은 오스트리아의 멩거와 독일 신역사학파의 슈몰러(Gustav Schmoller) 간에 벌어진 논쟁으로서, 獨逸語 使用圈에서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독자성이 명확하게 되는 계기가 된 논쟁이다.<sup>(8)</sup> 1883년에 출간된 책 『사회과학, 특히 정치경제학에서의 방법』(Untersuchungen der Sozialwissenschaften und der Politischen Oekonomie insbesondere)라는 책에서 멩거는 독일 역사학파의 학문적 성향을 비판함으로써 논쟁이 촉발되었다.

멩거의 비판은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독일 역사학파들이 경제학의 일반적인 원리와 특정한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역사적 원리를 구별하지 못하였다고

(8) 역사학파의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Shinoya(1995), Ikeda(2008)을 참조. 방법 논쟁에 관한 소개로서는 Fusfeld(1998)을 참조.

비판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독일 역사학파들이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논의를 구별하지 않고 특정한 정책적 입장에서부터 경제문제를 탐구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비판한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추후 막스 베버(Max Weber)가 독일 역사학파를 비판함으로써 벌어진 가치판단(value-judgement) 논쟁과 관련되는 것이며 이 논문의 주된 문제가 아니므로, 첫째 논점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멩거는 학문에서 '순수한 이론'과 응용은 둘 다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순수한 이론'에서는 보다 광범하고 보편적인 가정에 입각하여 일반적인 원리가 탐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슈몰러는 멩거의 책에 대한 비판적인 書評을 통해, 멩거가 말하는 '순수한 이론'은 비현실적 가정에 입각한 것이어서 실제 경제에 적용되기 어려우며, 경제발전 과정과 현실 경제에 적용되는 문제를 탐구하는 데는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슈몰러는 경제학 탐구의 방법은 가정보다는 자료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나아가 자료를 통해 파악된 경제적 현상들을 일반화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슈몰러의 비판에 대해서, 멩거는 1884년에 『독일 국민경제학에 있어서 역사주의의 오류』(Der Irrituemer des Historismus in der Deutschen National Oekonomie)를 발간하여 역사학과 경제학에 대해서 또다시 비판을 가하였으나, 슈몰러는 이에 대한 反批判을 하지 않음으로써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전개된 方法論爭에 대해서 오스트리아학파는 연역적-추상적 방법을 역사학파를 귀납적-역사적 방법을 주장한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Milford(1990)가 지적한 바와 같이, 멩거는 개인적 경험과 성찰을 통해 사회를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귀납적 방법을 더 중시하고 있다. 멩거는 개인의 행동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경험적으로 관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계효용의 개념도 소비량이 줄어드는 경우 효용의 감소 폭이 더 커진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따라서 멩거는 독일 역사학파에서 歷史的 자료를 귀납적으로 계속 집적하면 역사적 발전에 대한 일반원리가 발견된다는 역사주의(historicism)적 입장과 이러한 점에서 개인행동 분석을 소홀하게 되는 과도한 일반화 성향을 비판하려는 것이지, 귀납적 접근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독일 역사학파나 오스트리아학파나 모두 주관적 가치론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론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시장경제에 대해서 개인행동을 통해 설명하는 것인지 전체 사회에서의 경제발전과정으로 설명하려는 것인지가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오스트리아학파는 제도나 역사가 개인행동의 意圖하지 않은 결과라는 進化論的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제도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틀을 제공하고 있다.<sup>(9)</sup>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어 문화권에서의 방법논쟁을 미국에서의 벌어진 제도학과와 신고전학과와의 논쟁과 비교해보면 논쟁의 논점이나 수준면에서 미묘한 차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拙稿(1999)에서는 하나의 사례로 검토한 제도학파의 엘리(Richard T. Ely)와 수리적 경제학을 탐구한 천문학자 뉴콤(Simon Newcomb) 간의 논쟁을 살펴본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논쟁에서는 귀납법적 방법론과 연역법적 방법론의 대립이라든지, 방법론적 전체주의와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대립은 드러나지만, 個體論的 입장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분석하려는 진화론적 시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일문화권에서의 방법논쟁에 비해서 논쟁의 학설사적 의미가 적다라고 평가될 수 있다.<sup>(10)</sup>

### 3.2. 社會主義 計算論爭

사회주의 계산논쟁(Socialist calculation debate)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냐는 문제에 관한 논쟁이다. 이 논쟁은 1920년 오스트리아학파의 미제스가 “사회주의 공화국의 경제적 계산”(Die Wirtschaftsrechnung in sozialistischen Gemeinwesen)이란 독일어 논문에서 사회주의가 작동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 이래, 신고전학과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東歐圈 경제학자인 오스카 랑게(Oskar R. Lange) 등이 암묵적 비용계산에 의해서 사회주의체제에서도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1930년대에 본격화된 논쟁이다.<sup>(11)</sup>

미제스는 사회주의에서 경제계산이 불가능한 것은 시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상품 거래는 가능하지만, 生産手段인 자본 및 토지 등이 公有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없는 경우 각종 자본재의 가격은 정확하게 계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기업도 어떻게 하면 이윤을 최대화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물론 사회주의에서는 이러한 最適化를 하려는 기업가도 없기 때문에 경제계산 자체에 민감한 經濟主體도 없게 되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원활한 작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미제스의 비판적 지적에 대해서 사회주의의 作動可能性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일찍이 이탈리아 경제학자 바로네(Enrico Barone)가 사회주의 작동가

(9) 오스트리아학파의 적극적 의의에 대해서는 Yagi(1997, 2001)의 평가, 맑스주의와 비교한 유사점에 대해서는 흥훈(2000)의 연구를 참조.

(10) 이와 관련해서는 Yagi(1997)의 방법논쟁에 대한 평가를 참조.

(11) 사회주의 계산논쟁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강명규(1982), 박흥기(1995), 당시의 맥락을 포함한 오스트리아학파 입장에서의 서베이로는 Hayek(1949), Kirzner(1988), 그리고 사회주의의 작동가능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의 서베이로서는 Cox(2005)를 참조.

능성을 주장한 바 있으나, 이에 더하여 하이에크의 제자였던 러너(Abba Lerner), 이론경제학자인 디킨슨(Dickinson) 등은 왈라스적인 일반균형모형에 입각하여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에서의 자원배분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왈라스적인 일반균형모형은 選好(preference), 초기의 賦存資源(endowment), 技術(technology)이라는 세 가지 여건(data) 하에서 價格과 去來量이 동시에 결정되는 체계이므로,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세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가격, 특히 가장 效率的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비용은 계산 가능하다. 말하자면, 선호와 부존자원에 대한 데이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도 획득 가능하며, 기술적으로 주어지는 생산함수에서 대체되는 재화 간의 생산비용을 계산하면 시장경제에서와 동일한 가격체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왈라스적인 합리적 구성주의(rational constructivism)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미제스의 관점을 이어받으면서 좀 더 진전된 비판을 하고 있다.<sup>(12)</sup> 하이에크는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정보전달과 개인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왈라스적 사고방식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즉 개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과연 어떤 정보가 유용한지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알지도 못하며,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으로 유용한 局地的(local) 지식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실제 經濟行動을 할 때이므로, 경제계획을 위해서 集計的인 수치를 쓰는 것은 실제 경제의 움직임과는 상당한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신고전학파적 시장사회주의론과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관은 개인행동에 관해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에 입각하고 있다. 즉 오스트리아학파는 시장경제를 통해서 실제로 거래를 해야만 개인들의 선호가 드러나는 것이지 사전에 情報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신고전학파는 경제 행동에 관한 정보들은 비교적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경제행동을 합리적으로 보는가 아닌가라는 인간관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근본적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Lavoie(1990)는 종래의 해석에서 잘못된 점을 일곱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지적을 묶어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3)</sup> 첫째, 미제스가 사회주의가 실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작동 불가

(12)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모은 책으로서는 Hayek(1949)를 참조. 또한, 하이에크의 사회주의 비판에 있어서 미제스와의 공통점 및 더 진전된 점에 대한 설명은 Streissler(1994)를 참조.

(13) 다른 논점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시장 없는 사회주의를 의도적으로 건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학파 입장을 지지하는 하이에크, 미제스, 로빈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점, 1930년대 논쟁 이후에 계량적-거시적 계획기법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발전해가기 시작했다는 점들인데, Lavoie는 이들 논점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아울러 사회주의 계산논쟁을 방

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미제스는 이론적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 실제로 가격을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둘째, 바로네(Barone)가 중앙계획당국이 각 재화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는 것을 보였다고 말하는데, 미제스는 변화가 계속되는 현실경제에서 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 경제를 작동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지적하므로 미제스의 비판에 대한 해답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랑게(Lange)가 試行錯誤的(trial and error) 방법으로 시장사회주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미제스의 비판을 피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계산논쟁을 평가하면서 이 논쟁은 이론적으로 우열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현실 사회주의가 실제로 作動하는가 아닌가를 역사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식의 평가가 많은데, 이론적으로도 靜學的 이론에 입각한 社會主義 設計가 된다는 사고방식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즉 오스트리아학파는 이론적으로도 사회주의의 작동이 잘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작동가능성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靜學理論的 체계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점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학파의 미제스와 같은 학자는 만약 생산재부문이 사회주의화 된다면, 해당 부문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행동패턴이 시장계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생산비 계산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은 後日 Janos Kornai와 같은 사회주의체제 연구자들이 엄격한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라는 개념으로 정식화하여 이론적 탐구를 한 것과 연관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회주의 계산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Cox(2005)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나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1930년대 이후 투입산출분석을 비롯하여 여러 경제계획 기법이 발달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운용능력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도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 효율성이 의심받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20세기 말에 이르러 거의 모든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것을 목도할 때, 오스트리아학파가 인간의 경제 행동과 그 사회적 조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지적이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법론적 차이에서 연유한다고 해석하는 이상현(1999)의 글을 참조.

### 3.3. 價値論爭

가치론에 관한 논쟁은 限界革命의 핵심 주제의 하나로서 고전학파의 객관주의적 노동가치론과 신고전학파의 主觀主義的 효용가치론의 대립으로 나타났다.<sup>(14)</sup>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오스트리아학파는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을 엄격하게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맑스의 가치론의 이론적 缺陷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노동가치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우선 오스트리아학파에 의한 맑스 비판을 보기에 앞서서 당시 독일 문화권의 가치론적 흐름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학파의 비판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인다. 당시 독일의 역사학파들도 가치이론에 있어서는 주관적 가치론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독일의 고센(Heinrich Gossen)의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나 멩거의 한계효용이론을 새로운 업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반면 노동가치론에 근거하여 자본 생산성의 독자적 가치를 부인하는 입장에 대해서 경제학의 심리학적 성격을 없애버리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다.<sup>(15)</sup>

이러한 입장을 이어받아 뵘바베르크는 리카도에서 맑스로 이어지는 노동가치론을 비판하게 된다. 먼저 1884년에 출간된 『자본 및 이자이론의 역사』(*Geschichte und Kritik der Kapitalzins-Theorien*)에서는 노동가치론에 입각하여 자본에 대한 이자를 착취로 보는 견해를 비판한다. 뵘바베르크는 우회적 생산과정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생산하여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이 이자발생의 근거로 본다. 그에 따르면, 단순히 투입된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가치가 결정되므로 노동시간 중 일부를 착취해야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는 착취설의 입장은 시간이라는 요소를 무시한 견해라는 것이다. 즉 자본이 비록 본원적 투입요소가 아니고 중간재 생산물의 집합으로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라는 요소를 합쳐서 가중치를 구해야 하므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이자가 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6)</sup>

이러한 전반적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뵘바베르크는 맑스 가치론의 이론적 문제점

(14) 가치론의 전반적인 변화와 한계혁명에 대해서는 김신행·홍기현(2007)에서 요약된 설명을 참조. 또한, 맑스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 가치론의 방법론적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체계적 설명으로서는 홍훈(2000)의 책 2장을 참조.

(15) 19세기 후반 독일어 사용권에 있어서 가치이론의 역사와 논쟁에 대해서는 Kurz(1995)를 참조. 물론 당시 엥겔스(Friedrich Engels)를 비롯한 맑스주의자들은 한계효용이론을 비롯한 경제학의 심리학적 편향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였다.

(16) 뵘바베르크의 이론적 입장과 맑스의 이론적 입장을 대비하여 평가한 저작으로서는 Negishi(1989)를 참조. 이 책에서 Negishi는 양 입장을 절충하여 이윤 중 일부를 투자하지 않는 것을 자본가가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태만으로 보는 절충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뵘바베르크 자신의 자본 및 이자이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Samuelson(1994), Hong(1990)을 참조.

을 독자적인 논문을 통해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 논문이 바로 잘 알려진 바대로 1896년에 발간된 “맑스체계의 종언”(Zum Abschluss des Marxschen Sytems)이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뵘바베르크는 가치가 투하노동량에 비례한다는 맑스 『자본론』(Das Kapital) 제1권의 전제와 불변/가변 자본의 구성에 따라 가치가 노동량에 비례하지 않게 되는 『자본론』 제3권의 문제와 서로 모순적이라고 비판한다. 즉 만약 기계와 부품 등의 不變資本의 비율이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쓰이는 可變資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 있어서는 잉여가치는 적게 생산되는 반면 생산가격을 계산할 때 전체 자본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이윤은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잉여가치와 이윤의 괴리가 발생한다. 이 괴리는 산업 전체, 또는 평균적으로 보면 해소된다는 맑스의 생각에 대해, 뵘바베르크는 실제로 거래될 개별적 가격을 엄밀하게 계산할 때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나아가 뵘바베르크는 노동의 異質的 성격을 어떻게 추상적 노동이라는 것으로 동질화시킬 수 있는지, 노동 이외에 들어가는 다른 생산요소들은 가치계산에 있어서 무시될 수 있는지, 수요와 공급을 통해 競爭이라는 요소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일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를 언급하면서 가치이론과 관련된 방법론적 문제를 모두 제기하고 있다.

뵘바베르크가 주로 제기한 첫째 문제는 물론 맑스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소위 가치로부터 생산가격을 계산하는 전형문제(transformation problem)라고 하여 지금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당시 뵘바베르크의 지적은 맑스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촉발하여 이론적 논의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이유는 뵘바베르크의 비판이 단순히 이론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상으로서는 맑스주의의 기초를 비판하는 것이어서,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서 맑스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독일문화권에서 활동하던 맑스주의자들은 뵘바베르크의 비판에 대해서 맑스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는데, 그들의 접근 방식은 두 가지 점에서 공통되었다.<sup>(17)</sup> 하나는 뵘바베르크의 말대로 노동가치론이 맑스이론의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노동가치론이 相對 價格과 균등이윤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거시적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론의 목적을 다르게 立地시키는 것이었다. 1903년 “맑스 가치론의 통일성”(Die Einheitlichkeit der Marxschen Werttheorie)을 발표한 칼 폰 베르크(Karl Vonberg)는 맑스의 가치론은 『자본론』 1권에서 완성된 것이며 3권은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원리를 통해 가격이 설명된다는 것을 보인데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7) 이 당시 논쟁에 대한 좋은 서베이로서 Kurz(1995)의 글을 주로 참조하였다.

1904년 “뵘바베르크의 맑스비판”(Boehm-Bawerk's Marx-Kritik)이란 글을 발표한 Rudolf Hilferding은 상품이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노동가치론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수요-공급설을 통해서는 계급적 관계를 통해서 생산되는 商品價値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가치와 상대가격의 괴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오스트리아학파와 맑스주의자 간의 논쟁은 자신의 입장을 反復하는 것이었던데 비해서, 1906년과 1907년 논문들을 발간한 보르츠키에비츠(Bortkiewicz)는 古典學派 가치론에 근거하여 노동가치론을 엄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는 주어진 임금하에서 평균이윤율과 상대가격이 동시에 결정된다는 고전학파적 일반균형 가격이론을 제시함으로써 分析的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당시 논쟁은 분석수준은 조금 엄밀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한계주의자, 맑스주의자, 스라파주의자의 현대적인 가격이론의 대립의 단초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4. 資本論爭에 관한 方法論的 評價

189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친 경제학계에서 일어난 논쟁 중에서 자본 개념을 둘러싼 논쟁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논쟁들은 1960년대 신고전학파와 영국의 스라파주의자 간에 벌어진 케임브리지論爭(Cambridge controversy)과 유사한 논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이론의 변화과정, 나아가 방법론적 차이점 등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학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데 많은 示唆點을 주고 있다. 자세한 논점들은 Hong(1989), Cohen(2003, 2006), Dimand(1998), 木村(2006)의 연구를 통해 이미 자세히 밝혀져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방법론적 骨格을 소개하고 방법론적 입장과 논쟁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 4.1. 1890年代의 論爭

1890년대에 벌어진 초기 자본논쟁의 중심적 인물은 오스트리아학파의 뵘바베르크이다. 뵘바베르크는 그의 主著 『자본과 이자』(*Kapital and Kapitalzins*)에서 생산과정의 迂廻度(roundabout-ness)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技術的 優位性(technical superiority)이 양의 이자율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보였다. 나아가 생산의 우회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平均生産期間(average production period)이라는 척도를 제시하는데, 이 척도는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각 노동량이 투입된 양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감안하여 계산된 평균시간이다.

이러한 평균생산기간에 개념에 대해 한계생산력설의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클라크는 생산량이 일정해지는 정체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일정한 양이 생산되므로, 생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다양한 자본재를 超越하여 생산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일정한 양의 자본이란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순수한 자본 또는 이상적 자본'(pure or ide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sup>(18)</sup> 이러한 자본은 물리적 양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자본의 양이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생산량을 자본의 한계생산이라고 정의하고, 자본의 양이 주어진 경우 자본의 한계생산이 이자율을 결정함을 보이고 있다.

물론 Hong(1990)과 Garegnani(1970)에서 보였듯이 두 사람의 견해는 모두 이자율이 변할 경우 평균생산기간이나 자본스톡의 가치가 변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물론 이러한 誤謬는 이론의 초기 개발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단순한 이론발달상 기술적 오류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Velupillai(1975)가 밝혔듯이 이미 비슷한 시기에 Fisher(1907)가 이자율과 자본스톡의 가치를 一義的으로 연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시 경제학의 수준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편, 뵘바베르크와 피셔 간에도 利子率이 陽인 이유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뵘바베르크는 그 이유를 우회적 생산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피셔는 未來消費보다 現在消費를 선호하는 陽의 時間 選好(positive time-preference)를 들고 있다. 물론 拙稿(1996)에서도 보인 바와 같이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가정하에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假定을 좀 더 일반화하면 생산성의 이익과 양의 시간선호가 동시에 존재해야만 이자율이 양이 됨을 보일 수 있다. 그 이유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양의 시간선호에 의해 대부자금 供與者가 시간에 대한 일정한 프리미엄(premium)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대부자금 수혜자는 시간에 걸쳐 생산성을 올려야만 이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피셔의 미시경제학적 가격이론과 거시경제학적 자본개념의 관계이다. 피셔는 1906년의 저작 『자본과 소득의 본성』(*The Nature of Capital and Income*)에서는 자본이란 각종 자본재에서 발생하는 미래 소득의 현재가치의 합이라는 단순히 會計學的으로 보이는 개념을 제시하고, 따라서 투자수익률(rate of return on investment)이란 이러한 자본가치의 증가에 따른 소득의 증가분으로 계산된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Garegnani(1970)에서 이미 보였듯이, 상대가격이 변할 경우 자본재의 종류와 양이 같더라도 자본가치는 변하므로 각종 자본재가 實物的으로 증가하여 주는 영향과 상대가격 변화

(18) 클라크의 자본개념에 대해서는 Clark(1888, 1893)를 참조, 그리고 이 자본개념이 적용된 한계생산력 분배이론에 대해서는 Clark(1891)를 참조.

가 주는 영향을 구별하지 않고서는 이 개념을 적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결국에는 1財貨 經濟를 가정하거나, 相對價格 일정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러한 集計的 개념들이 적용될 수 있게 된다.<sup>(19)</sup>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론적 난점에도 불구하고 자본 개념을 近似的으로 사용한 이유에 대한 해석은 아무래도 당시 학자들의 관심사나 연구성향에 따라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Dorfman(1995)은 오스트리아 資本理論과 미국 경제학자의 이론을 비교하면서, 오스트리아학파는 유럽의 맑스경제학자의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자의 倫理的 정당성을 보이는데 역점을 둔 반면,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본 개념을 제시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Hong(2008)이 주장하듯이, 미국 경제학자 간에도 성향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클라크는 독일 역사학파의 영향을 받아 유기체적인 자본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성향이 강한 데 비해, 피셔는 實用的인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데 더 노력한 측면이 있다.

물론 실용적인 측정 도구라고 해서 반드시 이념적 측면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피셔의 자본 개념에 대해서 미국의 제도학과 경제학자인 Commons(1907)나 Veblen이 비판하는 점이다.<sup>(20)</sup> 이들은 단순한 자본재 가치의 합으로 자본을 정의하려는 피셔의 방법에 대해서 ‘企業家(businessmen)의 개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화폐적 합계로서 자본을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자본재와 결합된 產業(industry)의 실제적 생산과정 분석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 참여자의 입장들을 綜合的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간략한 <表 2>로 정리될 수 있다.

<表 2>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표는 상대적인 비교이지 절대적인 입지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뵘바베르크, 피셔, 클라크는 넓은 의미의 신고전학파에 속하는 입장으로, 制度學派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실 한 가지 표보다는 두 가지 축에서 입지를 보이는 것이 나올 것이다.

둘째, 각 학자의 입지도 연구경력이나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Fisher(1907)에서 나타난 미시경제학적 이자이론은 전형적인 신고전학파적 업적

(19) 당시 자본논쟁을 분석하는데 이론적 바탕이 되는 현대자본논쟁에 대한 요약과 평가에 대해서는 졸고(1991)를 참조.

(20) Dimand(1998)는 미국의 진화론적 사회이론가인 Sumner에게서 영향을 받은 Fisher와 Veblen이 대조적인 두 가지 길로 나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表 2〉 初期 資本論爭의 參與者의 方法論的 立場

	더 귀납주의적	더 연역주의적
더 개체주의적	Boehm-Bawerk	Fisher
더 전체주의적	Commons, Veblen	Clark

으로 평가되지만, 物價分析이나 경기변동 분석을 위한 Fisher(1906)의 거시적 자본 개념은 좀 더 귀납적이고 전체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각 학자의 방법론적 입장을 이론적 논의에서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보고 사후적으로 자리를 매기는 방식으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자의 자세한 방법론적 입장을 좀 더 면밀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뵘바베르크는 우회적 생산의 이익을 맨손보다는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거나 水路를 만들어 물을 옮기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는 식으로 귀납적 관찰을 하고 있으므로, 歸納主義的 성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21)</sup>

#### 4.2. 1930年代의 論爭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친 자본논쟁과 유사한 논쟁이 1930년대에서 벌어졌는데, 논쟁을 촉발시킨 사람은 오스트리아학파의 하이에크였다. 하이에크는 1931년에 발간된 『가격과 생산』(*Prices and Production*)에서 이자율이 내려가면 生産期間이 길어진다는 명제에 의거하여 경제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그는 화폐량이 증가해서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해도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즉 이자율이 내려가 더 생산기간이 긴 투자를 한 경우, 소비재의 부족으로 물가가 올라가므로 실질적 효과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저하한다면, 원래의 우회적 생산의 수익성이 나빠지므로 결국 이 투자는 도중에 실패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하이에크는 要素價格의 상대적 변동에 따른 변화라는 의미에서 ‘리카도효과’(Ricardo effect)라고 부르고 있다.<sup>(22)</sup>

하이에크가 자본을 시간이라는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할 데 대해서 나이트(Frank Knight)는 자본이란 다양한 요소들의 가치를 합산한 결과이므로, 이를 단일의 시간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비판은 얼핏 뵘바베르크에 대한 클라크의 비판과 유사

(21) 사실상 뵘바베르크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중에서는 가장 연역적 방법과 균형론적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오스트리아학파적 입장을 가진 학자들에게서도 비판을 당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자본논쟁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경제학자 Fetter는 뵘바베르크의 우회적 생산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主觀主義(subjectivism)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22) 이러한 효과를 후일의 해석자들은 하이에크 효과(Hayek effect) 또는 아코디언과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의미에서 콘서티나 효과(concertina effect)라고 부르고 있다.

하게도 보이지만, 상당한 이론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나이트는 자본을 노동과 같은 다른 요소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이트는 모든 요소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하이에크가 자본이 노동이나 토지와 같은 본원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독자적인 요소라고 생각한 것과 다르다.

이와 같은 나이트의 분석은 결국 1재화 경제를 가정하거나 상대가격 일정을 가정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 때문에 결국 나이트는 후기에는 크루소경제(Crusonia)라는 1재화 모형을 통해 성장률=이자율이라는 관계를 설명하게 된다. 나이트는 자본을 자본재 가치의 합이라는 거시적 변수로 분석을 하다가, 결국 1재화 모형을 상정하게 되는 것이다.<sup>(23)</sup>

아울러 이 당시 논쟁에 참여한 칼도(Nicholas Kaldor)의 입장 변화도 주목해볼 만하다. 木村(2006)의 분석에 따르면, 칼도는 하이에크의 영향을 받아 생산기간이란 개념에 찬동하다가, 점차로 경제성장 문제에 관심이 생기면서 生産函數的 분석을 하게 된다.<sup>(24)</sup> 이에 따라 그는 자본을 독자적 생산요소로 간주하면서, 나이트의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띄게 된다. 이러한 입장들을 방법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表 3>과 같다.

그런데 자본 개념을 둘러싼 이 논쟁의 논점들이 1890년대의 경우와 방법론적으로 유사하다고 하여, 반드시 논쟁의 이론적 구조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890년대의 경우 뵘바베르크, 클라크, 피셔는 넓은 의미의 신고전학과에 속하며 單一の 이자율(the single rate of interest)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줄고(2007)에서 밝혔듯이 1930년대에서는 참여자들의 이론체계상의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表 3> 1930年代 資本論爭 參與者들의 方法論的 位置

	덜 연역주의적	더 연역주의적
더 개체주의적	하이에크	나이트
덜 개체주의적	칼도(後期)	

(23) 이러한 변화를 Cohen(2006)은 初期 나이트(old Knight)에서 後期 나이트(new Knight)로의 변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경제를 단순화해서 보는 그의 방법론적 경향의 결과이므로 방법론적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나이트 자신은 이러한 단순한 이론 자체가 교육적 도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론적 모형 자체의 현실성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24) 칼도와 같이 자본을 독자적인 요소로 인정하면서 집계적 개념을 쓰는 것이 통상적인 신고전학파적 경제학이라고 한다면, 나이트의 입장은 모든 요소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Chicago 학파적의 선구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Cohen(2006)이 지적하듯이 나이트가 계속적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식축적을 중시한 것은 우연적인 일이 아닐 것이다.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이 논쟁의 참여자들은 모두 다양한 자본재가 있는 경우 단일의 物理的인 지표(a single physical index)로 자본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單純化된 전제하에서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있음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좀 더 복잡한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Milgate(1979)는 수요-공급설적 설명원리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일의 이자율이라는 상태가 설명되지 않으므로, 하이에크가 多數의 이자율이 존재하는 時點 間 일반균형(inter-temporal general equilibrium)이란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이에크는 균형적 분석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균형에서 벗어난 경우 市場的 發見節次(discovery procedure)가 어떻게 변해 가는데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므로, 개념적으로는 視點 間 일반균형을 언급하지만, 자세한 분석을 추구하지는 않고 있다. 아울러 나이트는 모든 요소의 성격이 같다면, 대표적 행위자(representative agent)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그대로 경제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보다 추상적이고 연역적인 입장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으며, 칼도는 경제 전체의 성장과 분배의 현실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분석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방향의 확립과정은 마치 현대경제학에서 오스트리아학파, 시카고學派, 통상의 신고전학파, 스라파주의자 또는 포스트 케인지안으로의 분화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 5. 맺음말

고전학파의 상대적인 쇠퇴 이후 代案的으로 등장한 1870년대 이후 경제학의 조류들을 방법론적으로 분류해보면, (i) 귀납적-개체주의적인 오스트리아학파, (ii) 연역적-개체주의적인 신고전학파, (iii) 귀납적-전체주의적인 역사학과와 제도학과, (iv) 연역적-전체주의적인 맑스 경제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서 보면 1870년대 이후의 시기는 古典學派 時代에 비해 좀 더 다양한 경제학이 등장한 시기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 간의 경쟁 속에서 결국 신고전학파가 지배적 사조가 되고 다른 경제학은 비중이 작은 상태에서 생존해나가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네 가지 학파가 競爭的으로 이론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논쟁을 주로 오스트리아학파에 속하는 학자를 매개로 하여 살펴보았다. 方法論爭에서는 멩거와 슈몰러의 입장을 비교하여, 역사-이론-정책의 종합적 연구를 강조하는 슈몰러에 비해

서 멩거의 입장이 전문화 추세에 더 적합한 것임을 밝혔다. 價值論爭에서는 노동가치론을 계승한 맑스 경제학을 비판하고, 한계효용가치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려는 오스트리아학파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1930년대의 社會主義 計算論爭에서는 시장 없는 가격의 작동은 現實的으로 불가능하다는 오스트리아학파의 論點이 정확히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였다.

또한, 자본 개념을 둘러싼 두 차례의 논쟁을 통해서, 다양한 자본재의 존재를 그대로 이론적 틀에 담기 위해서는 분석방법 면에서 더욱 연역적이고 더욱 개체주의적인 방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해야 했으며, 그럼에도 이러한 방법하에서 검증가능성을 위해서는 作意的인 방식으로 자본스톡의 가치를 測定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과학방법론상으로 보면, 근대과학은 思辨的인 철학적 전통에서 벗어나 경험론적 근거를 중시하는 것이므로, 귀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 득세해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경제학의 변화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즉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축적하여 역사의 일반적 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역사학파의 귀납적 본질주의(reductionist essentialism)는 패퇴하고, 보다 연역적이고 개체주의적인 경제학이 득세한 것이다.

물론 역사학파의 입장은 첫째 흄(David Hume)이 지적하듯이 모든 전체적 사실을 관찰할 수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 일반화가 필요하다는 과학방법론상 한계와 둘째 오스트리아학파에서 주장하듯이 인간 인식의 한계로 인해 개인은 전체를 인식할 수 없다는 원초적 무지(fundamental ignorance)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연역적이고 個體主義的 연구방법의 등장은 蓋然性이 컸다고 보이지만, 왜 경제학에서 이러한 연구방법이 득세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複合的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국제화라는 이론의 傳播過程에서 역사학파적 접근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제도적 차이보다는 추상적 내용이 동의를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동의를 바탕으로 경제학자들의 연구절차나 방법이 점차 동질화되는 방향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고전학파적인 단순한 이론 틀을 이용하여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가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교육과 연구에서의 의사소통 면에서나, 반복적 검증가능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이론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논문에서 다룬 내용은 경제학자들의 작업 중에서 理論的이고 概念的인 것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므로, 실제 응용경제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작업들이 대부분 신고전학파적이거나 특정 방법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經濟模型과 實證過程에서 사용되는 개념, 분석기법, 자료들은 너무나 다양하다. 이러한 실제적 작업의 특성은

개별적 주제들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 특히 1920년대 이후 발달된 계량경제학적 기법과 관련된 ‘이론 없는 측정’(measurement without theory)에 관한 논의들과 관련하여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教授

151-74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전화: (02)880-6379

팩스: (02)886-4231

E-mail: hongk@snu.ac.kr

## 參 考 文 獻

- 강명규(1982): “경제계산 논쟁과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의 현대적과제』(안당 신태환 박사 고회기념논문집), 박영사, 233-252.
- 김신행 · 홍기현 (2007): “두남 선생의 경제이론: 제이자본론에서의 가치론을 중심으로,” 『경제논집』, 46, 1-17.
- 박흥기(1995): “경제계산 논쟁과 하이에크의 과제,” 조순 외, 『하이에크 연구』, 민음사, 195-242.
- 이상현(1999): “방법론적 시각에서 본 사회주의 계산논쟁: 미제스-하이에크의 사회주의 비판 재해석,”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2, 285-323.
- 송현호(1992): 『경제학방법론』, 비봉출판사.
- 홍기현(1991): “현대자본논쟁에 대한 과학방법론적 평가,” 『경제논집』, 30, 35-59.
- \_\_\_\_\_(1996): “뵘바베르크와 피셔 간의 이자율논쟁의 학설사적 의의,” 『경제논집』, 35, 339-52.
- \_\_\_\_\_(1999): “19세기 말 미국에서의 제도학과와 신고전학과 간의 방법논쟁,”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나남출판, 73-96.
- \_\_\_\_\_(2007): “1930년대 균형개념과 가격이론의 변화에 대한 학설사적 평가,” 『경제논집』, 46, 155-68.
- 홍 훈(2000): 『마르크스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사상』, 대우학술총서 495, 아카넷.
- 木寸雄一(2006): “初期カルドアとハイエク資本理論,” 日本經濟學史學會, 『經濟學史研究』, 48, 93-109.

- 田村信一・原田哲史(2009):『ドイツ經濟思想史』,東京,八千代出版.
- Alter, Max(1990): *Carl Menger and the Origins of Austrian Economics*, Boulder, Westview Press.
- Blaug, Mark(1980):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5):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rk, J. B.(1888): “Capital and Its Earnings,” *Publications of the American Economics Association*, **3**, 2.
- \_\_\_\_\_ (1891): “Distribution as Determined by a Law of R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5**, 299-318.
- \_\_\_\_\_ (1893): “The Genesis of Capital,” *The Yale Review*, **2**, 302-15.
- Cohen, A.(2003): “The Hayek/Knight Capital Controversy: The Irrelevance of Roundaboutness, or Purging Processes in Tim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5**, 469-90.
- \_\_\_\_\_ (2006): “The Kaldor/Knight Controversy: Is Capital a Distinct and Quantifiable Factor of Production?” *European Journal of Economic Thought*, **13**, 141-61.
- Commons, J. R.(1907): “Political Economy and Business Economy: Comments of Fisher’s Capital and Income,” *Quarterly Journal of Economy*, **22**, 120-25.
- Cox, Robin(2005): “The “Economic Calculation” Controversy: Unravelling of a Myth,” *mimeograph* in <http://www.cvoice.org/cv3cox.htm>.
- Dimand, R. W.(1998): “Fisher and Veblen: Two Paths for American Economics,”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20**, 449-65.
- Dorfman, R.(1995): “Austrian and American Capital Theories: A Contrast of Cultures,”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17**, 21-34.
- Endres, A. M.(1997): *Neoclassical Microeconomic Theory: The Founding Austrian Vers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Fisher, I.(1906): *The Nature of Capital and Income*, New York, Macmillan & Co.
- \_\_\_\_\_ (1907): *The Rate of Interest*, New York, Macmillan & Co.
- Fusfeld, D. R.(1998): “Methodenstreit,” in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Vol. 3, 454-55.
- Garegnani, P.(1970): “Heterogeneous Capital, the Production Function and the Theory of

- 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37**, 407-36.
- Hayek, Friedrich(1949): *Individualism and Economics Ord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Hong, Keehyun(1989): “A Second Look at Two Early Capital Controversies,” *Korean Economic Review*, **5**, 15-36.
- \_\_\_\_\_ (1990): “Measure of Capital in Boehm-Bawerk’s Flow Input Model,” *Seoul Journal of Economics*, **3**, 159-177.
- \_\_\_\_\_ (2008): “Professionalization and the Spread of Marginal Economics in the United States,” *Kyoto Economic Review*, **77**, 127-155.
- Hutchison, T.(1955): “Insularity and Cosmopolitanism in Economic Ideas, 1870-1914,” *American Economic Review*, **45**, 17-28.
- Ikeda, Yukihiro(2008): “The German Historical School: Toward the Integration of the Social Sciences,”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formerly *Annals of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50**, **1**, 79-95.
- Kirzner, Israel(1988): “The Economic Calculation Debate: Lessons for Austrians,”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2**, 1-18.
- Kurz, Heinz D.(1995): “Marginalism, Classicism and Socialism in German-Speaking Countries, 1871-1932,” in I. Steedman(ed.) *Socialism and Marginalism in Economics, 1870-1930*, London, Routledge, 7-86.
- Lavoie, Don(1990): “A Critique of the Standard Account of the Socialist Calculation Debate,” in S. Littlechild(ed.) *Austrian Economics*, Vol. 3, London, Edward Elgar, 352-357.
- Mises, Ludwig von(1969): *The Historical Setting of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Arlington House (on-line edition by the Ludwig von Mises Institute, 2003).
- Milford, Karl(1990): “Menger’s Methodolog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Annual Supplement to Vol. 22, 215-39.
- Milgate, M.(1979): “On the Origin of the Notion of Intertemporal Equilibrium,” *Economica*, **46**, 1-10.
- Menger, K.(1883): *Untersuchungen Ueber der Methode der Sozialwissenschaften, und der politischen Oekonomie insbesondere*, F. J. Nock trans., *Problems of Economics and Sociology*,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3.

- Negishi, Takashi(1989): *History of Economic Theory*,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 Ross, Dorothy(1991): *The Origins of American Social Scienc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uelson, Paul(1994): “Two Classics: Boehm-Bawerk’s Positive Theory and Fisher’s Rate of Interest through Modern Prisms,”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16**, 202-28.
- Senn, Peter R.(1996): “Sombart’s Reception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in Juergen Backhaus(ed.) *Werner Sombart: Social Scientist*, Vol. 3,(Then and Now), Metropolis Verlag, Marburg, 111-286.
- Shinoya, Yuichi(1995): “A Methodological Appraisal of Schmoller’s Research Program,” in Peter Koslowski(ed.) *The Theory of Ethical Economy in the Historical School*, 57-78.
- Streissler, E.(1994): “Hayek on Information and Socialism,” in M. Colonna *et al.*(eds.), *Capitalism, Socialism and Knowledge: The Economics of F. A. Hayek*, Vol. 2, Edward Elgar, Aldershot, 47-75.
- Tanaka, T.(2000): “Introductory Essay to the Correspondence: The Development of John Bates Clark’s Economic Theory and Franklin Henry Giddings,” *The Research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and Methodology*, **18-B**, 7-31.
- Velupillai, K.(1975): “Irving Fisher on ‘Switches of Techniques’: A Historical Not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9**, 670-680.
- White, Lawrence H.(1984): *The Methodology of the Austrian School Economists*, Revised ed., Auburn, Ludwig von Mises Institute.
- Yagi, Kiichiro(1997): “Carl Menger and the Historicism in Economics,” in Peter Koslowski (ed.),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s, Ethics, and Economics in the Newer Historical School*, Heidelberg, Springer, 231-58.
- \_\_\_\_\_(2001): “The Place of Austrians in the History of Economics: A Survey of Recent Research,” *Annals of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39**, 86-93.